

서혜부 잠복 고환에서 발생한 지지세포종의 신장 전이 증례

박지영 · 정성목* · 이재연 · 지현철 · 손화영 · 조성환 · 최호정 · 이영원 · 박성준 · 김명철

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

서론: 지지세포종은 개의 고환에 발생하는 종양 중, 간질세포종, 고환종과 함께 가장 흔한 형태로,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잠복 고환일 경우에 발생율이 높다. 종괴는 대개가 양성을 띠고, 전이율은 10% 이하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.

증례: 15년령의 수컷 요크셔 테리어견이 우측 하복부 전반에 걸친 종괴를 주증으로 내원하였다. 약 1년 전부터 배변 곤란과 기립불능이 발생하였으며, 일반 신체 검사상, 전신 상태가 불량하고 탈수 소견이 관찰되었다. 음경 우측에 위치한 7×9×8 cm의 단단한 종괴는 혈관화와 열감이 뚜렷하였으며, 2.5×2.5×2.5 cm의 또 다른 종괴가 음경 좌측에 존재하였다. 혈액검사상에서는 미약한 빈혈 소견과 혈중 요소 질소 및 아밀라아제 수치의 상승이 있었다. 방사선 검사에서 흉부로의 전이 소견은 없었으나, 복부 일반 방사선 검사에서는 요추 부위에서 직장이 배쪽으로 변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신장의 무에코성 다결절 낭상 종괴 및 요하 림프절의 종대를 관찰하였다. 추가적인 CT 검사에서 복부 종괴의 조영 증강을 확인하였고, 미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, 핵/세포질 비율이 높은 다수의 구형세포들이 크고 작은 공포를 지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. 환축은 안락사 후, 부검을 실시하였다.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, 복부의 두 종괴가 고환으로 확인되었고, 종양 세포들의 울타리 배열 양상이 관찰되었다. 이에 지지세포종을 진단하고, 우측 신장과 우측 요관 주위의 종괴에서도 동일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.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세포종의 우측 신장 및 요관 주위로의 전이로 평가하였다.

임상적 의의: 지지세포종은 개에서 고환에 발생하는 종양 중 주로 잠복고환에 양성으로 발생하는 예가 많으나, 본 증례는 신장으로의 전이가 일어난 드문 증례로서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.

* Corresponding author : jsmok@cnu.ac.kr